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151호 농업정보

주간 2017. 9. 4. - 9. 10.

여성도 운전할 수 있는 밭작물 이식기 첫선



전남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0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의 영향으로 5~6일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7~22도, 최고기온: 26~29도)보다 전반에는 조금 낮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3~12mm)보다 많겠음

0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8

- ▶ 주의보 : 이삭도열병, 벼멸구, 고추·배추 바이러스병 등
- ▶ 예 보 : 흰잎마름병, 세균벼알마름병, 단감 탄저병 등

0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9

- ▶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과 9월 수급안정대책 방향
- ▶ 수급안정대책 추진

0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1

- ▶ 한국 머스크멜론·단호박 홍콩 수출

0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2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0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4

- ▶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후작 벼 유기질비료 시비 기준설정
- ▶ 아티초크 장기재배 재식년수별 생산성 및 개식시기
- ▶ 골드키위 해금 수확기 토양수분 관리 요령
- ▶ 벼(다향흑미)
- ▶ 전국 유일 여름철 영농기술 교육 호평
- ▶ 여성도 운전할 수 있는 밭작물 이식기 개발
- ▶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유인포획장치 개발
- ▶ 버려지는 귀리 껍질에 이런 효능이...
- ▶ 적기 수확으로 고품질 옥수수 생산의 기쁨을
- ▶ 미래 먹거리, 아열대작물로 대비한다
- ▶ 맛있는 추석과일 출하 위한 농가의 관리기술은
- ▶ 폭염 뒤 잦은 비로 농작물 생육저하, 병 발생 주의

07 정책 동향 31

- ▶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 ▶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일제 점검
- ▶ 전남도, 농경지·산림 돌발해충 공동 방제

0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4

- ▶ 순천시, 손쉬운 꽃차 활용 교육 수강생 모집
- ▶ 곡성군, 몸에 좋은 곡성토란 GAP 교육 실시
- ▶ 고흥군, 유자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 실시

- ▶ 화순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확대 팔 걷어
- ▶ 해남군,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 ▶ 무안군, 벼멸구 집중예찰로 피해방지 총력
- ▶ 함평군, 한농연·한여농 함평군연합회 항암배추 모종 심기
- ▶ 장성군, 벼 대체작물로 논감자 콕 찍었다

09 해외 농업정보 42

- ▶ 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 ▶ 미국, 슈퍼마켓 몇 년 뒤 25% 사라질 것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9. 4.(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기준 월이 9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전일 대비 6.9% 상승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3.8% 상승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4% 상승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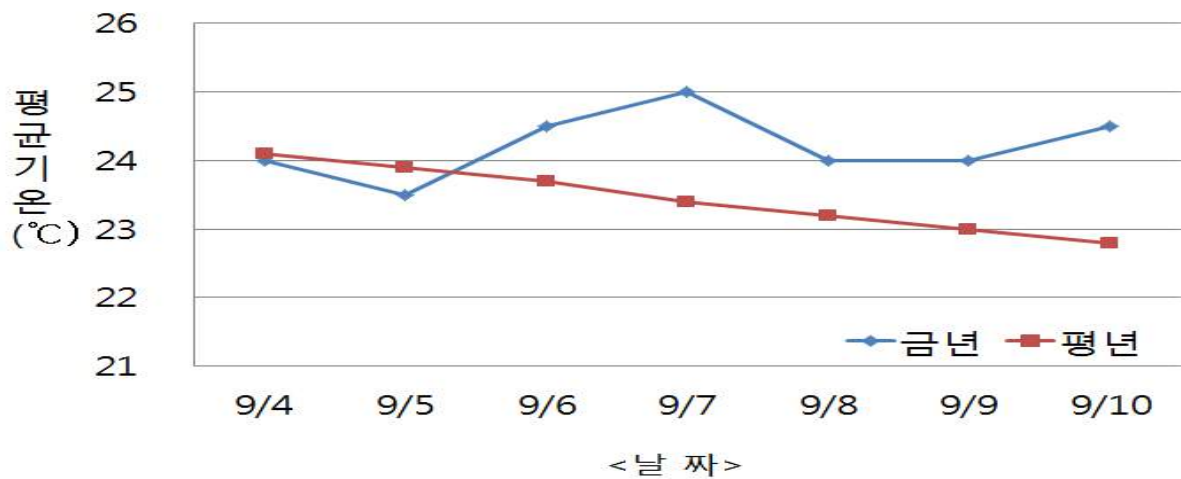
10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2017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 ▶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영농컨설팅 실시
- ▶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백로(白露)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9월 4일 ~ 9월 10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4.2℃ (평년대비 0.8℃ 높음)
- 최고기온 : 28.3℃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20.1℃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5.2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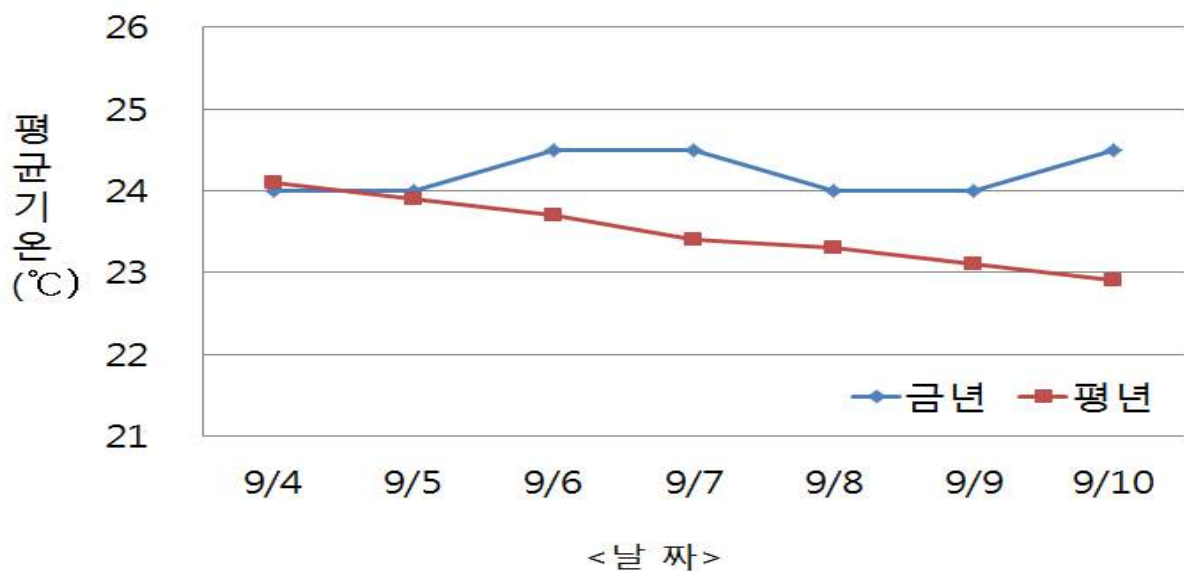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2	23.4	0.8	28.3	28.2	0.1	20.1	19.8	0.3	5.2
9. 4.(월)	24.0	24.1	-0.1	28.0	28.7	-0.7	20.0	20.6	-0.6	7.6
9. 5.(화)	23.5	23.9	-0.4	26.0	28.7	-2.7	21.0	20.2	0.8	5.5
9. 6.(수)	24.5	23.7	0.8	27.0	28.5	-1.5	22.0	20.0	2.0	4.9
9. 7.(목)	25.0	23.4	1.6	28.0	28.2	-0.2	22.0	19.8	2.2	5.2
9. 8.(금)	24.0	23.2	0.8	29.0	28.0	1.0	19.0	19.6	-0.6	3.2
9. 9.(토)	24.0	23.0	1.0	30.0	27.7	2.3	18.0	19.4	-1.4	4.6
9. 10.(일)	24.5	22.8	1.7	30.0	27.4	2.6	19.0	19.2	-0.2	5.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9월 4일~9월 10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4.2℃ (평년대비 1.5℃ 높음)
- 최고기온 : 27.4℃ (평년대비 0.3℃ 낮음)
- 최저기온 : 21.0℃ (평년대비 0.6℃ 높음)
- 강 수 량 : 4.8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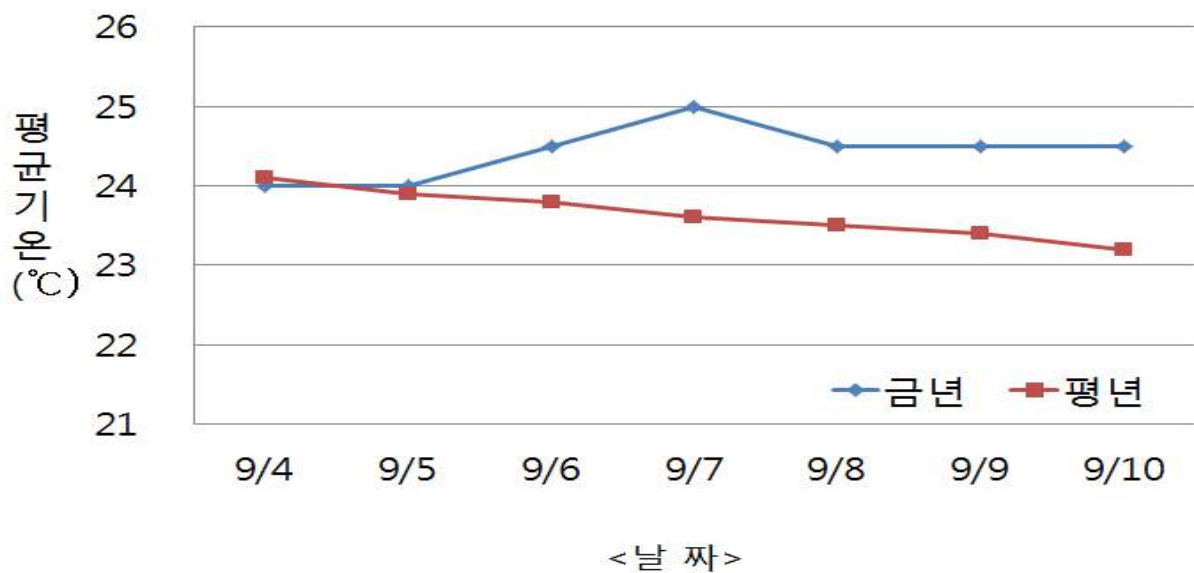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24.2	23.5	1.5	27.4	27.7	-0.3	21.0	20.4	0.6	4.8
9. 4.(월)	24.0	24.1	5.0	27.0	28.1	-1.1	21.0	21.1	-0.1	8.3
9. 5.(화)	24.0	23.9	0.1	26.0	28.1	-2.1	22.0	20.8	1.2	4.8
9. 6.(수)	24.5	23.7	0.8	26.0	28.0	-2.0	23.0	20.6	2.4	4.5
9. 7.(목)	24.5	23.4	1.1	27.0	27.7	-0.7	22.0	20.4	1.6	4.6
9. 8.(금)	24.0	23.3	0.7	28.0	27.6	0.4	20.0	20.2	-0.2	3.0
9. 9.(토)	24.0	23.1	0.9	29.0	27.3	1.7	19.0	20.1	-1.1	3.9
9. 10.(일)	24.5	22.9	1.6	29.0	27.0	2.0	20.0	19.9	0.1	4.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9월 4일~9월 10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4.4℃ (평년대비 0.8℃ 높음)
- 최고기온 : 26.9℃
- 최저기온 : 22.0℃ (평년대비 0.9℃ 높음)
- 강 수 량 : 5.6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4.4	23.6	0.8	26.9	26.8	0.0	22.0	21.1	0.9	5.6
9. 4.(월)	24.0	24.1	-0.1	26.0	27.2	-1.2	22.0	21.6	0.4	8.2
9. 5.(화)	24.0	23.9	0.1	25.0	27.2	-2.2	23.0	21.4	1.6	5.8
9. 6.(수)	24.5	23.8	0.7	26.0	27.0	-1.0	23.0	21.3	1.7	4.3
9. 7.(목)	25.0	23.6	1.4	27.0	26.8	0.2	23.0	21.1	1.9	5.1
9. 8.(금)	24.5	23.5	1.0	28.0	26.7	1.3	21.0	21.0	0.0	4.6
9. 9.(토)	24.5	23.4	1.1	28.0	26.5	1.5	21.0	20.9	0.1	4.7
9. 10.(일)	24.5	23.2	1.3	28.0	26.3	1.7	21.0	20.7	0.3	6.2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2017. 9. 1. ~ 9. 30.)

농촌진흥청은 버벌구, 먹노린재,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깨씨무늬병, 고추·사과 탄저병, 고추·배추 바이러스병, 무·배추 무름병, 과수 돌발해충 등에 대한 주의보를 발표하오니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별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구 분		식량작물	원예작물
주 의 보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삭도열병 · 잎집무늬마름병 · 깨씨무늬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추·사과 탄저병 · 고추·배추 바이러스병 · 무·배추 무름병
	해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노린재 · 버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
예 보	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균벼알마름병 · 흰잎마름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감 탄저병 · 사과 갈색무늬병·겉무늬썩음병 · 포도 갈색무늬병·노균병 · 감귤 궤양병·역병
	해 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콩 노린재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배거세미나방 등 채소 해충류 · 복숭아심식나방 등 과수 해충류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3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과 9월 수급안정대책 방향

□ 최근 농산물 가격동향

- 배추 등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은 상황이며, 이는 7월 폭우피해와 8월 잦은 비의 영향에 따른 작황 부진과 출하량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최근 선선한 기온과 일조시간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채소류를 비롯한 농산물의 생육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평년 출하물량 회복에 다소 시간 소요

□ 전망

- 앞으로 평년수준으로 기상여건이 안정화되고, 예기치 않은 태풍 등 변수가 없다면 채소류의 일반적 가격 패턴(9월 중 대체로 하향세)으로 볼 때 가격 안정 품목이 늘어날 전망
- 채소류 생육회복과 출하지역 확대 등 공급여건 개선으로 배추 등 대부분 채소류 수급은 이후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
- 추석성수기에 공급되는 사과·배는 공급량이 충분해 평년수준의 가격이 예상되나, 포도는 재배면적 감소로 평년대비 다소 높은 가격 예상
- 소고기·돼지고기는 명절수요와 대체수요 등으로 강보합세 예상되며, 계란·닭고기 등은 살충제 계란파동으로 가격 약세 예상

수급안정대책 추진

□ 공급확대 및 현장 모니터링 강화

- 정부비축 물량 운용, 강우 등 기상여건에 대비한 기술지원 등으로 수급안정 도모
- 배추·무는 24천톤 수급조절물량 활용, 도·소매시장 탄력 공급
- 양파·감자·돼지고기의 출하조절 물량 운용과 더불어 농협, 민간 저장업체 등의 저장물량 출하독려
- 고랭지채소 등 산지 점검 및 기동반 운영을 지속하고, 필요시 현장 기술지원단의 생육지도 지원(9월 까지)을 강화

□ 추석대비 수급안정 대책 마련

- 추석 이전 3주간(9.11.~10.2.) 일일 수급 및 가격동향 점검을 통해 주요 성수품 수급안정 추진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 추석에 수요가 많은 10개 중점관리 품목의 공급확대 방안 마련
- (농산물) 배추·무·사과·배, (축산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계란, (임산물) 밤·대추
- 직거래장터 등 특판장 개설, 청탁금지법 영향 등을 고려한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공급확대 및 소비촉진 홍보
- 소매 유형별 성수품 구입비용(추석 전 2회), 원산지표시 등 유통 단속, 안전성 특별조사 등 추진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한국 머스크멜론·단호박 홍콩 수출

- 청양·안동·곡성에서 생산한 머스크멜론이 홍콩 수출 길에 올랐다. 한국산 머스크멜론의 홍콩 수출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청양군은 멜론 800박스/(8kg), 안동멜론은 25톤을 수출했으며, 곡성농협은 올해 3000톤을 수출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수출 물량은 홍콩 대형유통매장 등에 판매될 것이다.
- 한국산 머스크멜론은 일본산 멜론과 비슷하게, 껍질이 단단하고 과즙이 풍부하다. 최저 14°Brix에서 최고 22°Brix까지 나와, 수박보다 달다는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여름철 재배 후 저장 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머스크멜론은 운송 기간 중 손상을 감소하고 유통 및 보존시간을 연장하여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홍콩에서도 현재 여름을 맞이하여, 다양한 멜론 식품을 출시하고 있다. 빵·케익·음료수·젤리 등 멜론맛 식품이 큰 인기를 끌 것이다.
- 머스크멜론뿐만 아니라, 한국 이천농협에서 재배한 단호박이 홍콩에 4년째 수출하고 있다. 이번 수출 물량은 7톤으로 홍콩 대형유통매장 등에 판매되며, 홍콩시장 수요 반응에 따라 물량과 횟수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한국의 단호박은 육질이 단단하며, 단맛이 강하여 다양한 먹거리의 재료 및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홍콩시장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한국 단호박은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전문 재배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5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9. 4.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9/4)	1주일전 (8/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2,700	32,600	32,320	34,850	41,400	↓ 6.2	↓ 21.0
	콩(백태)	35kg	171,800	171,800	171,800	152,250	163,217	↑ 12.8	↑ 5.3
	고구마(밤)	10kg	32,000	32,000	33,480	29,300	27,460	↑ 9.2	↑ 16.5
	감자(수미)	20kg	42,800	44,000	35,280	24,400	24,267	↑ 75.4	↑ 76.4
채소류	배추(고랭지)	1kg	2,000	1,760	1,338	2,320	1,132	↓ 13.8	↑ 76.7
	양배추	10kg	11,600	11,600	8,580	9,700	8,327	↑ 19.6	↑ 39.3
	오이(다다기계통)	10kg	42,000	37,667	43,067	43,250	35,306	↓ 2.9	↑ 19.0
	애호박	20개	49,000	38,200	28,840	36,800	26,803	↑ 33.2	↑ 82.8
	건고추(화건)	60kg	1,050,000	700,000	688,000	657,500	812,000	↑ 59.7	↑ 29.3
	풋고추	10kg	53,000	58,000	50,080	108,500	50,827	↓ 51.2	↑ 4.3
	마늘(깐마늘)	20kg	127,000	127,000	126,000	133,500	113,633	↓ 4.9	↑ 11.8
	양파	20kg	25,800	25,600	25,080	18,200	19,107	↑ 41.8	↑ 35.0
	당근	20kg	31,600	28,600	28,800	46,500	37,687	↓ 32.0	↓ 16.2
	대파	1kg	2,320	2,280	1,768	2,485	1,974	↓ 6.6	↑ 17.5
	파프리카	5kg	47,000	38,600	15,040	25,750	31,567	↑ 82.5	↑ 48.9
	토마토	10kg	37,800	34,600	23,000	27,750	26,490	↑ 36.2	↑ 42.7
	방울토마토	5kg	31,600	27,000	18,440	19,500	18,553	↑ 62.1	↑ 70.3
	사과(홍로)	10kg	40,000	37,800	-	46,100	48,202	↓ 13.2	↓ 17.0
과일류	배(신고)	15kg	56,000	54,600	57,600	54,250	48,923	↑ 3.2	↑ 14.5
	복숭아(백도)	4.5kg	18,000	16,800	22,200	16,700	17,545	↑ 7.8	↑ 2.6
	포도(캠벨얼리)	5kg	22,000	22,800	24,840	17,300	16,940	↑ 27.2	↑ 29.9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9/4)	1주일전 (8/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6,600	516,600	517,000	540,000	549,333	↓ 4.3	↓ 6.0
	느타리버섯	2kg	15,000	14,400	11,640	17,750	16,380	↓ 15.5	↓ 8.4
	새송이버섯	2kg	8,600	8,200	7,440	9,950	8,770	↓ 13.6	↓ 1.9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181	8,010	7,972	7,981	7,026	↑ 2.5	↑ 16.4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50	2,351	2,324	2,075	2,009	↑ 13.3	↑ 17.0
	닭고기	1kg	5,281	5,300	5,054	6,197	5,695	↓ 14.8	↓ 7.3
	계란(특란)	30개	6,145	6,546	7,613	5,592	5,675	↑ 9.9	↑ 8.3
	우유	1리터	2,527	2,527	2,527	2,551	2,527	↓ 0.9	-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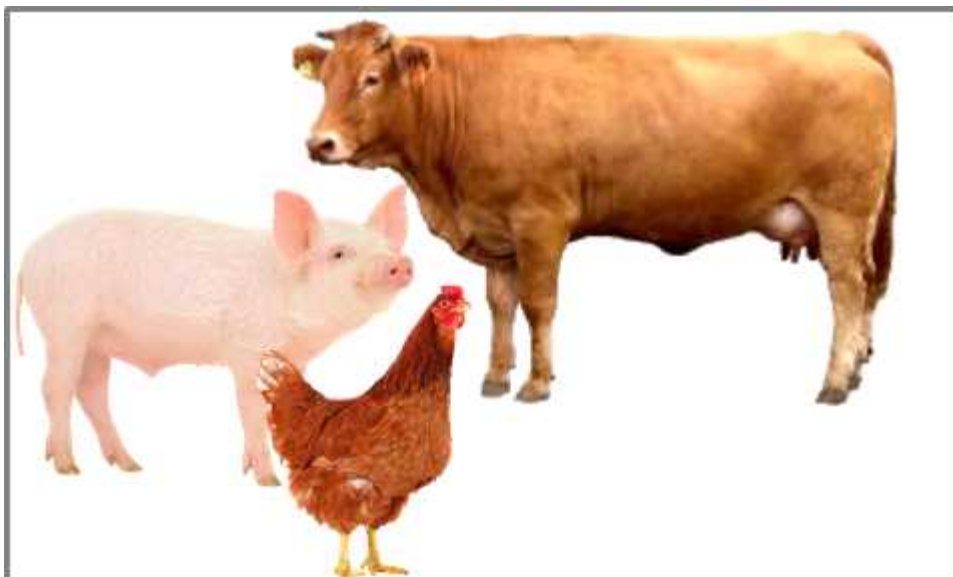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 금주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가격정보는
다음 주 제공 합니다.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후작 벼 유기질비료 시비 기준설정

배경 및 필요성

- 사료작물 후작 벼 유기토양 양분관리기술 정립 및 매뉴얼 보완
- 자원순환형 토양·양분관리기술 개발로 경종축산 유기농기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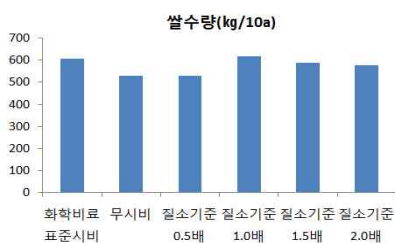
영농기술·정보 내용

- 적용대상 :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후작 벼 유기재배
- 적용기술
 - 시비기준 : 관행 화학비료 이용 일반벼 고품질 검정시비의 질소 기준 1.3배 적용
 - 시비법 : 라이그라스 수확 직후, 벼 이앙 25일전 전량 밑거름으로 시비 후 경운
 - 시비량 계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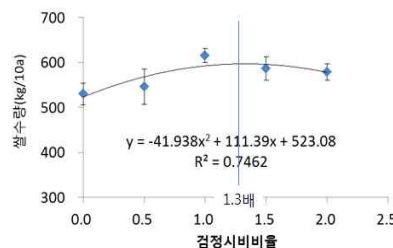
$$\text{유기질비료 시비량(kg/10a)} = \{(1.3 \times \text{검정시비 질소량}) / (\text{비료 질소성분량} \times \text{비료무기화률})\} \times 10,000$$

기대 및 파급효과

- 사료작물(IRG) 및 벼 유기재배의 안정·지속 생산을 위한 토양 양분관리 기술 개발로 경축순환농업 기반 마련



【수량】



【검정시비량】



【과다시비 벼 도복피해】

유기질비료 질소수준별 수량 및 검정시비량 산정(2016)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김선국, 김현지

■ 아티초크 장기재배 재식년수별 생산성 및 개식시기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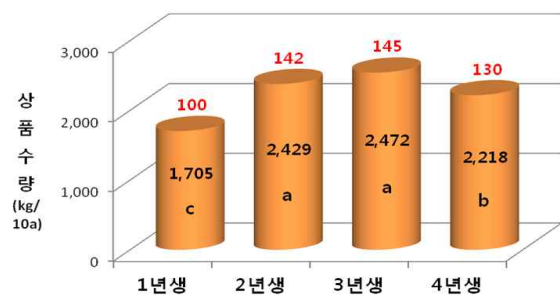
- 최근 기후온난화와 더불어 아열대채소가 국내에 도입되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배기술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음
- 숙근성 다년생 채소로 남부지방에서는 시설재배만 경제적 재배 가능
- 장기재배에 따른 재배년수별 생산성을 비교·검토하여 재배의 안전성과 경제적 적정 개식시기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영농기술·정보 내용

- 재배년수별 생산성 및 개식시기 구명 : 3년생
 - 수확주율 : 1년생(98.1) > 2년생(95) > 3년생(82.5) > 4년생(72.5%)
 - 상품수량 : 1년생(1,705kg/10a) 대비 4년생 30%, 2년생 42%, 3년생 45% 증가



【재식년수별 수확주율】



【10a당 상품수량 및 지수】

○ 개발기술 현장 활용방법

- 아티초크 시판종자를 구입, 7월 하순에 50공 트레이에 파종하여 40일 육묘 후 8월 하순~9월 상순에 무가온 시설하우스에 정식한다.
- 12월~익년 2월까지 동계기간 월 평균기온이 5℃, 일일 최저온도가 -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재배관리에 유의한다.

- 아티초크 화퇴 수확은 정식한 다음해 5월부터 6월 사이에 인편이 벌어지기 전에 먼저 출퇴한 것부터 1주당 2~3회에 걸쳐 수확한다.
- 매년 화퇴 수확이 종료되면 지상부 식물체는 6월 중순부터 마르기 시작하는 하고현상이 시작되며 이 기간 동안 지상부의 양분이 지하로 이동하여 식물체가 고사하는데 고사한 식물체는 톱 등으로 지제부에서 제거한다.
- 매년 8월 하순경 제거한 식물체 지제부에서 새로운 흡지가 발생하는데 2~3개 분지가 나오며 다음해 3월 하순 소화퇴가 발생, 5월경 화퇴를 수확한다.
- 정식 후 3년생까지는 화퇴 수확량이 증가하지만 4년생은 여름철 하고현상 및 동계 생육과정 고사로 수확주율이 떨어져 상품수량이 감소한다.

□ 기대 및 파급효과

○ 생산성 : 상품수량 1년생 대비 3년생 45% 증가

○ 경제성 분석 : 농가소득 1,501,000원/10a 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1,567,000원 - 수확, 포장노력 : 750,000원 · 15일×50,000원 - 포장재 및 지주대 : 817,000원 · 77개(10kg)×3,000원 = 231,000원 · 586개×1,000원 = 586,000원	○ 증가되는 이익 : 3,068,000원 - 상품수량 증가 : 767kg · 4,000원×767kg = 3,068,000원 ※ 단가산정 : 농가수취 가격 - 계(B) : 3,835,00원
○ 추정수익액(B-A) : 3,068,000 - 1,567,000 = 1,501,000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손동모, 김성준, 김효중

■ 골드키위 해금 수확기 토양수분 관리 요령

□ 배경 및 필요성

- 해금 재배 면적은 약 156ha(유목포함), 2016년 생산량은 약 1,500톤
- 수확기 색도변화에는 토양수분이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되나 연구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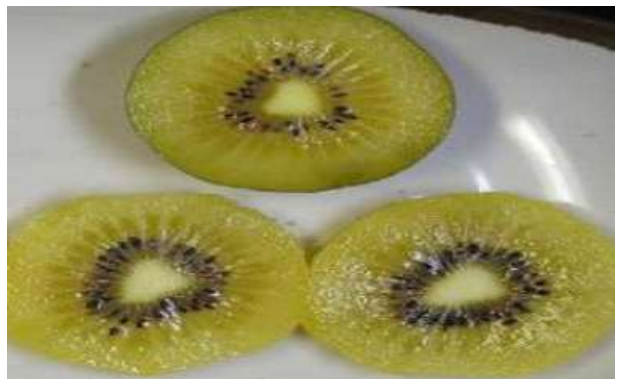
□ 영농기술·정보 내용

- 4월부터 8월말까지는 충분한 관수를 실시(주 3~4회, 약 2시간/회)
- 고온기가 끝나는 9월초부터 관수량을 줄여 토양표면에 물기가 보이지 않은 약간 건조한 수준으로 유지(식양토 기준)
- 토양수분(TDR센서 단위)이 20~30% 수준 유지(약 Pka단위 27~29 수준)
- 무강우 시에는 지나치게 건조하지 않도록 토양수분을 최소한 20% 이상 유지(주 2회, 2~3시간 정도 스프링클러 관수)
- 평소 물이 잘 빠지지 않는 점질토양은 겨울철에 배수로를 정비하여 강우 시 지표수가 잘 배출되도록 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수확기 지연 시 과실경도 감소와 노린재 피해와 증가 방지(최대 30%)
- 수확된 과일의 품질 색도 균일성 증진
- 소득 증가: 1,880천원/10a(비상품과 20% 감소 기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 조윤섭



■ 벼 (다향흑미)

□ 배경 및 필요성

- 전남지역 벼 흑미재배 지역에 적합한 내병성 및 수량성이 높은 흑향미 품종 필요
- 교배조합 : 상해향혈나 돌연변이

□ 품종 주요특성

- 중만생종, 흑향미, 메벼
- 내도복, 줄무늬잎마름병 강, 내수발아성
- 용도 : 가공, 혼반용



【다향흑미】



【흑남벼】

□ 재배상 유의점

- 질소질 비료를 과용하면 미질저하, 숙색불량 및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 균형시비로 재배해야 함
- 도열병은 중도 저항성이고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하나 오갈병, 검은줄 오갈병 및 벼멸구 등에 감수성으로 적기 기본방제를 하여야 함
- 벼흰잎마름병에 약한 품종으로 상습발생지 및 해안지역 재배를 금함

□ 기대 및 파급효과

- 식량작물연구소 벼 시험포장에서 생산한(~1,000kg) 종자를 우선 분양
- 우리 도내 흑미 재배지역 1,000ha 보급 시 30~100억 수익 창출효과 기대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신서호, 이인, 민현경

■ 전국 유일 여름철 영농기술 교육 호평

- 21개 시군 4만여명 대상으로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 교육 추진 -

- 전남농업기술원(김성일 원장)은 6월 15일 나주시를 시작으로 8월 25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작목별 전문가 400여명을 선발하여 찾아가는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했다.
- 본 교육은 1982년부터 전남에서 전국 최초로 여름철 현장 영농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작물 생육시기인 여름철에 당면한 영농 기술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마을회관이나 정자나무 밑에서 질의응답식,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 농촌마을 현장에 찾아가는 주민소통 교육 사업으로 농업인들로부터 크게 호평을 받고 매년 1,500여 개소에서 4만여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도 있다. 교육은 마을단위 회관이나 정자나무 밑을 활용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구감소, 고령화 및 미택위주에서 지역별 특화작목 재배하는 등 농업농촌 환경 및 트렌드 변화로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교육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추진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평가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박경곤 농업교육과장은 “‘2017 여름철 현장 영농 기술교육 평가회를 개최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농업·농촌의 실태와 트렌드에 맞는 영농교육 추진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며 최근 스마트 팜, 곤충산업, 치유농업 및 지역특화 작물육성과 관련해 만족도가 높은 전문교육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여성도 운전할 수 있는 밭작물 이식기 개발

- 밭작물 소형 이식기 개발로 농촌노동력 부족 해결 기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과 죽암기계(대표 차기원)는 공동으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밭작물 이식기를 개발해서 고흥군 점암면 한동리 들녘에서 8월 31일 농업인과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배추 이식 연시회를 가졌다.
- 이번 연시회는 양배추를 소형 이식기를 이용해서 1,000㎡를 2시간 20분에 이식하였고 결주율도 1.8%로 매우 낮아 작업기 성능에 대해 참석자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웠다.
- 이번에 개발한 이식기는 보행 반자동 1조식으로 무게가 60kg 정도로 매우 가볍고 조작방법이 단순하여 소규모 농지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여성 혼자서도 운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콩·옥수수·양배추 등 다양한 밭작물에 적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 밭 농업의 노동력 부족 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이식기는 200kg 이상으로 무겁고 500~1,500만원으로 비싸며 2인이 운전해야할 뿐만 아니라 적용 작물이 한정되어 품목이 많고 규모가 작은 국내 밭 농업 특성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 이식기 개발을 주도한 죽암기계에서는 금년 10월부터 한 대당 35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식기 대중화의 첫 번째 제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갈색날개매미충 성충 유인포획장치 개발

- 하루에 700마리 포획 가능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전국의 농경지, 산림 및 도심의 주거공간으로 확산되는 갈색날개매미충 성충을 약제를 뿌리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유인포획장치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그 동안 이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발육단계별 맞춤형 방제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특히 성충은 이동성이 높아 주변에서 수시로 날아오기 때문에 약제방제 효율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과수원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성충을 효율적으로 유인하여 포획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게 되었다.
- 이번에 개발한 장치는 전기 사용형과 전기 미사용형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전기를 사용하는 장치는 이 곤충이 좋아하는 주광색광과 황색판, 포집수반을 이용하였는데 하룻밤에 700마리까지 포획되었다. 전기 미사용형은 황색끈끈이에 유인물질을 도포하여 만든 것으로 하루에 214마리가 포획되는 제품으로 (주)M사와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박사는 위 두 시제품의 포획효과는 감과 아로니아 농장에서 이미 실증하였으므로 설치하고자 하는 환경조건에 따라 전기 사용형과 전기 미사용형 중 선택하여 설치 가능하며, 산란 전에 성충을 제거할 수 있어서 내년도 발생밀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는 도시민의 주거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포획장치를 추가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버려지는 귀리 껍질에 이런 효능이...

- 귀리 껍질 추출물에서 골다공증 예방과 개선 효과 밝혀 -

- 귀리 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인 귀리 껍질이 건강 기능성 소재로써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룡)은 귀리 껍질 추출물이 뼈 파괴 억제와형성을 촉진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 현재까지 쌀귀리는 6품종, 겉귀리는 20여 품종이 개발됐으며,총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1,200ha로 2006년 2ha 대비 600배가증가했다.
- 귀리는 베타글루칸·아베난쓰아마이드·아베나코사이드 등의 기능성분을 가진 작물로 혼반용, 미숫가루, 귀리빵,オート밀, 후레이크,화장품, 시리얼과 과자, 말사료 등으로 이용된다.
- 소비와 생산이 늘고 있는 귀리는 가공 부산물인 껍질이 대부분사료로만 이용돼 왔다. 그런데 최근 실험결과, 껍질에 함유된 성분이골다공증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 귀리 껍질 추출물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을 동물세포실험 실험동물(마우스)의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귀리껍질 추출물 효능을검정으로 검정한 결과 뼈 파괴는 약 90% 억제하고, 뼈 형성은약 3~5배 촉진하는 이중 효능을 보였다.

- 귀리 껍질을 주정과 물로 각각 추출해 실험한 결과 파골세포 활성 억제 효과와 조골세포 분화 촉진에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 주정 추출물은 특히 파골세포 활성 억제 효과가 우수한 반면, 물 추출물은 파골세포 활성 억제와 조골세포 분화 촉진 두 가지 모두에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 농촌진흥청은 『귀리껍질 추출물을 포함하는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을 특허출원하고 효과를 나타낸 물질을 분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량생산 조건을 확립해 기준물질 표준화 및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에 힘쓸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박기도 작물기초기반과장은 “저렴한 귀리의 부산물에서 우수한 기능성 물질을 얻음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적기수확으로 고품질 옥수수 생산의 기쁨을

- 곡실용·간식용 옥수수 수확적기와 수확 후 관리방법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옥수수 수확기를 맞아 곡실용·간식용 옥수수의 적정 수확시기를 소개했다.
- 사람이 먹는 옥수수는 주로 가공 이용성이 높은 곡실용과 찰옥수수·단옥수수 등으로 이용되는 간식용으로 나눌 수 있다.
- 가공용 옥수수는 옥수수가 완전히 성숙한 후에 수확해 이용하기 때문에 간식용 옥수수와는 적정수확 시기에 차이가 있다.
- 간식용으로 이용하는 찰옥수수와 단옥수수는 수염이 나온 후 각각 22~23일, 19~20일쯤에 수확한다.
- 곡실용 옥수수는 이삭 내 수분함량이 30% 이하가 되는, 수염이 나온 지 45일 이후 수확하는 것이 좋으며, 기계수확 시에는 수분함량이 25% 이하가 될 때 수확해야 이삭의 손상을 줄일 수 있다.
- 적기 수확을 놓칠 경우 옥수수의 당도가 떨어지거나 조수(鳥獸), 병 등에 의한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수확이 늦어진 간식용 찰옥수수는 딱딱해지면서 품질이 저하되고, 단옥수수는 당도가 떨어져 맛이 없어진다.
- 곡실용 옥수수의 경우 줄기가 많이 쓰러지고 쥐, 새 등의 피해를 받아 수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기상 여건 등에 따라 곰팡이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특히, 이삭에 상처가 있으면 병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많은 비가 예상되거나 습한 날이 계속될 경우에는 평소보다 앞당겨 수확해야 한다.
- 간식용 옥수수는 수확 후 품질유지를 위해 바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곡실용 옥수수는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좋은 곳에서 말리거나 건조기를 이용해 빠른 시간 안에 건조해야 한다. 습도를 낮추고 저온에서 저장해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은 『황다옥·일미찰·고당옥』 등 수량이 높고 재배 안정성이 우수한 국산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김병주 과장은 “곡실용·간식용 옥수수를 최적 시기에 수확하면 고품질 옥수수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수, 병해충 등의 피해에 의한 수량 감소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적정 수확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수확기 곡실용 옥수수】



【흰찰옥수수 이삭의 모습】

■ 미래 먹거리, 아열대작물로 대비한다

-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작물 50종 도입·20종 선발... 재배기술 개발·보급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아열대작물 연구를 2008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50종의 아열대작물을 도입해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20종을 선발했다.
- 최근 지구 온도상승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20년경 아열대 기후지역은 우리나라(남한) 경지 면적의 10.1%에서 2060년 26.6% (RCP8.5), 2080년에는 62.3%로 늘어나 한반도 대부분이 아열대 기후권에 속할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선발한 20종의 아열대작물 중 패션프루트·망고 등 과수 5종, 여주·롱빈·아티초크 등 채소 8종 등 총 13작목의 재배기술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 아열대 과수 중 망고는 열풍기, 히트펌프, 다겹보온커튼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46%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나무의 키를 낮게 키우는 방법으로 노동력 36% 절감과 상품률 20%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다.
- 최근 재배면적이 늘고 있는 패션프루트 묘목 번식기술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묘목 값을 10a당 240만원 줄일 수 있다.
- 아열대 채소는 기능성이 높은 작목을 도입해 선발하고 있으며 관련 재배기술도 개발해 수량을 높이고 있다.
- 혈당치를 낮추는 성분이 함유된 여주는 무가온 시설재배기술로 수량을 24% 늘렸다.

-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롱빈은 노지재배 정식기를 밝혀내 수량을 33% 높였다.
- 신장과 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성분이 있는 아티초크는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품종을 선발하고 수량을 27% 높일 수 있는 재배 기술을 개발했다.
- 더불어, 농촌진흥청에서는 도입한 아열대작물의 기능성분도 분석하고 있으며 아열대작물의 한식 요리로 재탄생을 위해 경기대학교 김명희 교수팀 및 요리전문가와 함께 관련 조리법(레시피)도 개발했다.
- 여주 소고기전·파파야 샐러드·공심채 새우교자·오크라 짬아지·차요테잎 추어탕·파파야 깍두기 등 아열대 13작물을 이용해 95개의 요리 조리법을 만들어 책자로 발간한 바 있다.
- 기후변화와 더불어 소비자 기호도 변화, 다문화 가정 등의 영향으로 아열대작물 소비는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아열대작물 재배면적이 1,000ha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작물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재배기술 개발·보급과 함께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맛있는 추석과일 출하 위한 농가의 관리기술은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과일유통량이 가장 높은 명절 성수기에 맞춰 출하를 예정한 사과·배·단감·감귤 재배농가가 참고할 관리 기술을 핵심어로 제시했다.

□ 사과 : 빛, 빨간색, 수확시기

- 햇빛이 사과나무 아래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웃자란 가지 등 복잡한 가지를 정리한다. 과일에 달린 잎이 빛을 가리고 있으면 따주는 것이 좋다.
- 수확하기 20~30일 전에 반사필름을 과원 아래에 깔아 과일 전체에 골고루 빨갱게 색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또한 저장용과 즉시 유통할 사과는 수확시기를 달리한다. 저장할 사과는 일찍 따고, 바로 판매할 것은 최대한 완숙기에 가까운 때에 수확한다.

□ 배 : 분산수확

- 한 나무 안에서도 과일이 달린 위치에 따라 익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나무갓(수관) 외부의 큰 과실부터 3~5일 간격으로 2~3회 나눠 수확하면 균일한 품질의 과실 수확이 가능하다.

□ 단감 : 적기수확

- 단감의 익은 정도를 색깔로 나타낸 색상표(컬러차트)를 활용해 열매꼭지부분(과경부) 색깔이 기준 이상이고, 색이 균일한 과일을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감귤 : 선별

- 추석에 출하하는 시설(비닐하우스)재배 감귤은 기본 이상의 당도가 보장되기 때문에 1~2차로 나눠 선별작업을 하면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폭염 뒤 잦은 비로 농작물 생육저하, 병 발생 주의

- 주요 농산물 생육조사... 병해충 확산 방지 예방 당부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폭염 뒤 잦은 비로 인해 농작물 생육 부진이 나타나고 무름병, 탄저병 등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벼 : 병증 미리 관찰해 예방 필요

- 병해충 발생면적은 79,211ha로 전년대비 57%, 평년대비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확기까지 비가 자주 내릴 경우,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등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병징 발생 여부를 사전에 관찰하고 예방위주로 방제해야 한다.
- 한편 포기당 이삭수와 이삭당 벼알수(영화수)가 2016년보다 적지만 평년보다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추 : 무름병, 바이러스병 주의

- 현재 태백·평창·정선 지역에서 출하 중인 배추의 무름병 발생률은 20~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호우와 고온이 지속될 경우, 무름병과 바이러스병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포장 내 물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이삭도열병 증상】



【흰잎마름병 증상】



【사과 탄저병 증상】

□ 고추 : 탄저병, 바이러스병 발생 주의

- 고추 주산지인 청양·태안 지역 바이러스 발생률은 15%, 탄저병 발생률은 20%로 나타났으며, 안동지역 탄저병은 15%, 바이러스는 40%로 조사됐다.
- 강우, 일조부족 등으로 생육이 더딜 경우, 비료를 녹여 잎에 뿌려주고, 세균성 병원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살균제 처리를 하거나 토양이 과습하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 사과 : 사과 탄저병 발생 증가 경향

- 경북 북부지역(영주·문경·안동)과 충청지역의 주산지에서 사과 탄저병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쓰가루·홍로』 등 조·중생종 품종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조생종과 만생종을 동시에 재배하는 포장의 경우 만생종(후지) 품종에도 발생이 증가했다.
- 탄저병 방제를 위해선 병든 과실은 따내어 땅에 묻고, 수세가 좋도록 거름주기(비배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홍로』와 같이 탄저병에 약한 품종은 과수원을 미리 살펴 의심되는 증세가 보이면 전용약제로 방제를 실시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7 정책 동향

◆ 닭고기 유통가격 한 눈에 볼 수 있다

- '17. 9. 1.부터 닭고기 가격 공시 시행 -

□ 배경

- 닭고기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등의 경매를 거쳐 유통되지 않아서 시장흐름에 따른 가격형성이 되지 않고, 중간 유통가격을 알 수 없어 소비자가 치킨가격에 포함된 닭고기 가격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선

□ 발표가격

- (위탁생계가격)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로부터 살아있는 닭을 구입하는 평균가격, (도매가격) 도계 후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대리점에 판매하는 일일 평균가격, (생계유통가격) 살아있는 닭 유통업체가 비계열 농가의 살아있는 닭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평균가격

□ 가격정보 확인

- 축산물품질평가원(www.ekape.or.kr), 농식품부(www.mafra.go.kr)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

□ 기대효과

- 닭고기 유통구조 투명화, 시장기능에 따른 닭고기 가격형성 유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닭고기 가격정보 제공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 일제 점검

- 전남도, 4일부터 2주간 183농가 대상 -

- 전라남도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소 귀표 자가부착 지정농가』를 대상으로 부착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소를 키우는 농장주는 송아지 출생 후 5일 이내에 지역 축협 등 위탁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축협은 30일 내에 해당 농장을 방문해 귀표를 부착하게 된다.
- 이번 점검 대상은 귀표 자가부착 농가로 지정된 219개 농장 중 6월 중 점검했던 36농가를 제외한 183농가다. 시군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으로 소 사육농가를 방문해 점검한다.
- 점검반은 소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를 출력해 △가축 사육 시설 주소지 일치 여부 △소 사육 수 일치 여부 △귀표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 출생 등 거짓신고나 귀표를 부착하지 않고 이동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된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 배운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소 이력정보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정비하겠다”며 “소비자가 믿고 찾는 축산물이 유통 되도록 지속적으로 이력관리 지도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농경지·산림 돌발해충 공동 방제

- 전라남도는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급격하게 발생 면적이 느는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해충이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인삼·사과·포도·콩 같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줌에 따라 산림농업 관련 기관이 공동 방제에 나선다고 밝혔다.
- 외래 해충인 꽃매미는 2006년 충남 천안에서 처음 발생했고, 미국선녀벌레는 2009년 서울과 수원, 갈색날개매미충은 2010년 김제와 순창에서 처음 발생한 후 전국적으로 나타나며 과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
- 이 같은 돌발해충은 이른 봄부터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을음 피해를 줘 생육 및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여기에 농경지와 인근 산림까지 이동 서식 하는 특성 때문에 그동안 방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 실제로 올해 전남지역 돌발해충 발생 면적은 순천 등 9개 시군 농경지와 산림 2천 357ha(산림 312ha)에 이른다.
- 전라남도는 이에 따라 성충이 산란을 시작하기 전인 9월 중·하순까지가 농경지와 인근 산림을 동시에 방제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 9월 1일부터 10일까지를 『공동방제의 날』로 지정했다.
- 이 기간 동안 농경지 주변 산림과 농경지를 동시에 방제하기 위해 산림농업부서농협이 합동으로 동력분무기·광역방제기·무인헬기 등을 동원, 방제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 출처 : 전라남도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순천시, 손쉬운 꽃차 활용 교육 수강생 모집

- 순천시는 일반시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교육장에서 9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17 손쉬운 꽃차 활용 교육』을 진행한다.
- 이 교육은 계절에 따라 피는 꽃을 이용하여 차 만들기 실습을 직접 해봄으로써 손쉽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또한 차를 직접 생산하고 있는 농가대표를 강사로 선정해 총 4회(월 18:00부터 20:00까지) 진행한다.
- 만 19세 이상 순천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 15일까지 순천시청 또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 순천시는 앞으로 건강한 식탁을 위해 직접 재배한 텃밭채소를 이용하여 가공, 요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출처 : 순천시



■ 곡성군, 몸에 좋은 곡성토란 GAP 교육 실시

- 작목별 교육실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에 앞장 -
- 『흙이 좋은 곡성, 토란 좋은 곡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금 곡성군(군수 유근기)에서는 전국 최대 재배면적을 자랑하는 곡성 대표작목인 토란을 가공산업으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그 중심에 서 있는 곡성토란 작목반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 곡성군 죽곡면과 삼기면 토란 작목반은 8월 18일과 30일에 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농산물 안전성 관리강화 교육을 이수했다.
- 이번 교육은 주산지 GAP 사업에 대한 설명과 GAP 인증 기본교육 그리고 PLS 제도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 곡성토란 작목반은 올해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에 참여하여 토양과 용수 안전성 분석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GAP 인증도 추진하여 안전한 먹거리로 생산부터 판매까지 관리할 계획이다.
- 곡성군 GAP 담당자는 “몸에 좋은 곡성 토란이 안전한 먹거리로 소비자에게 인식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곡성 대표 농산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유자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 실시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농산물 우수 관리제도 인증 교육 -

- 고흥군은 2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발족한 『고흥유자 6차산업화 추진단』이 관내 유자농가 100여명을 대상으로 고흥유자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안전농산물 생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교육은 내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인증 교육으로 진행됐다.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수입된 농산물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 잔류농약의 허용기준을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며, 적합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약병에 명시된 작물보호 지침서에 나온 해당 품목, 해당 병해충 약제에 등록된 농약만을 적정농도, 사용횟수, 수확 전 사용일수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우수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안정성 인증을 위한 제도로 현재 고흥유자 재배면적의 17%에 불과한 GAP 인증을 전체 재배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인증 절차, 관리기준, 재배농가 이행사항 등 인증에 꼭 필요한 기본 교육을 실시하였다.

* 출처 : 고흥군

■ 화순군,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확대 팔 걷어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인증 농가 부담 경감 기대 -

-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및 친환경인증 확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비를 지원키로 했다.
- 군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벼·복숭아·토마토·울무 등 8개 품목 484ha에 달하는 농경지를 1차로 발굴, 현재 분석지점 선정 등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 분석지점 선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농경지 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동의를 얻어 시료채취 후 토양, 용수에 대한 안전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 사업에 참여하는 필지의 안전성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기간 안에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들은 손쉽게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주산지 GAP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는 군 농업정책과 유통팀(061-379-3681) 또는 읍면 산업팀을 통해 문의 후 신청·접수하면 된다.
- 화순군 관계자는 “작두콩·아스파라거스·블루베리·옥수수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사업량을 추가 발굴해 보다 많은 농경지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GAP 인증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화순군

■ 해남군,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 실시

- 4만 5,159두 9월말까지 예방접종 -

- 해남군은 8월 30일부터 한 달 간 관내 14개 읍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공급 및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해남군 전체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은 1459호, 4만 5,159두로 소규모 소 사육농가 1179호 1만 5,344두에 대해서는 공수의사 7명과 읍면 담당직원을 접종반으로 편성해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돼지 21호 4,954두, 염소 27호 7,953두에 대해서는 군에서 백신을 100% 지원하고 전업농은 50%를 지원해 남진도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입 후 자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소는 송아지 2개월령에 1차 접종, 4주 후 2차 접종, 이후 4~7개월 간격으로 접종하고, 돼지는 어미돼지는 분만 3~4주 전, 수돼지는 4~7개월 간격, 비육돈은 8~12주령에 접종해야 한다.
- 군 관계자는 “돼지 구제역 항체형성율이 낮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돼지사육농가의 철저한 백신접종이 요구된다”며 “구제역 청정 해남 사수를 위해 완벽한 백신접종과 주기적인 방역·소독, 외부인 출입제한, 야생동물 출입차단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해남군

■ 무안군, 벼멸구 집중예찰로 피해방지 총력

- 무안군은 최근 서남해안 지역 벼멸구류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벼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벼멸구 밀도조사 및 사전방제를 위한 집중예찰에 나섰다.
- 예찰 결과 무안군 벼멸구 발생 필지율은 전체필지의 7.2%로 전년보다 5%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8월말 기준 20주당 100마리 이상 발생하여 방제가 필요한 필지는 전체 필지의 약 2% 정도이다.
- 6~7월 저기압 통과 시 중국대륙으로 날아온 멸구류는 계속되는 고온으로 세대가 단축되고 번식이 왕성해져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해 9월 중·하순경 벼 등숙시기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높다.
- 특히 9월에는 장시형(긴 날개형) 성충이 많이 나타나며, 주로 벼 포기 아랫부분에서 성충과 약충이 벼대의 즙액을 빨아먹어 방제가 안 될 경우 집중 고사현상과 그을음병 피해가 발생한다.
- 무안군 관계자는 “농가에서 8월 하순까지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멸구 피해가 우려되므로, 즉시 적용약제를 살포하고 예찰을 통해 벼멸구 발생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벼멸구 중점방제를 당부했다.

* 출처 : 무안군



■ 함평군, 한농연·한여농 함평군연합회 향암배추 모종 심기

- (사)한국농업경영인(한농연) 함평군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한여농) 함평군연합회(한여농)는 8월 29일 대동면 강운리에서 향암배추 모종 6천주를 식재했다.
- 이날 행사는 7월 파종한 배추를 아주 심기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말 배추를 수확 후 12월에 김장김치를 담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 회원 30여명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 모종을 심으며 회원 간의 단합을 다졌다.
-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행사에 참석한 안병호 군수는 “바쁜 일상에도 지난 파종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까지 참여한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사랑이야기 프로젝트가 끝까지 잘 진행되어 우리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함평군



■ 장성군, 벼 대체작물로 논감자 콕 찍었다

- 봄감자 + 벼농사 재배 시 벼농사보다 4~6배 고소득 -

- 장성군이 휴경 기간에 벼를 대체하는 작물을 심어 고소득을 거두는 신기술을 적극 보급한다. 화제의 소득 작물은 『논감자』다.
- 장성군은 감자와 벼농사를 2기작으로 재배하는 『봄감자·벼농사 작형 특성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 결과, 벼만 재배하는 것보다 최대 4~6배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8월 29일 밝혔다.
- 장성군에 따르면 6월 중 감자재배가 끝나면 벼농사를 연이어 재배하는 2기작을 도입한 데다 가뭄으로 인해 감자 가격이 좋아 다른 해보다 많은 소득을 거뒀다. 안정적인 판로를 위해 재배 농가가 지역농협과 구매계약을 맺어 CJ프레시웨이와 남품계약을 맺은 것도 고소득 요인이다.
- 장성군은 감자 생산량 증대를 위해 인공씨감자 기술을 적극 보급할 방침이다. 장성군농업기술센터는 2년 전부터 인공씨감자 생산 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으로 농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씨감자는 조직배양기술을 활용해 시험관에서 생산한 콩알 크기의 씨감자로 기존 씨감자의 문제점인 바이러스, 곰팡이, 박테리아 등 문제를 해결해 감자 생산량을 크게 늘림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다.
- 장성군은 논감자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지역 적응성 실증 재배를 통해 재배기술 등을 정립하면 군 대표 작물로 논감자를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 출처 : 장성군

9 해외 농업정보

◆ 태국, 아시아 최초 설탕세 도입 확정

- 설탕세란 소비자들이 섭취하는 음료에 함유된 설탕의 양에 따라 소비세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아세안 국가 내 비만을 2위인 태국 국민들의 건강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하루 설탕 섭취권장량이 25g으로 약 6티스푼인데, 올해 태국의 평균 설탕섭취량은 28티스푼으로 권장량을 훌쩍 넘어선지 오래이다.
- 미국·덴마크·프랑스·멕시코·헝가리·아이랜드·노르웨이·남아프리카·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미 설탕세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데, 아시아에선 태국이 최초이다.
- 2016년 2월부터 태국에서는 설탕세 도입을 계획해 왔으며, 현재 태국의 재무장관 Apisak Tantivorawong은 올해 2017년 9월 16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총 6년 동안 2년을 주기로 설탕을 함유한 음료의 세율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태국 소비세국은 기존에 도매가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던 방식에서 희망소매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보다 공정한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내산 천연재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비과세 품목으로 지정되었던 커피와 차 등의 품목들도 다른 과일주스 및 탄산음료와 같이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면서 해당 업체들에게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미국, 수퍼마켓 몇 년 뒤 25% 사라질 것

- 미국 내 전통적인 수퍼마켓의 수가 2021년까지 24.6%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 Inmar Willard Bishop Analytics는 최근 『Future of Food Retailing 2017』 보고서를 통해, 전통적인 의미의 수퍼마켓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대규모의 창고형 마켓과 포장·장식 없이 엄가로 판매하는 실속 상품매장, 또는 신선함에 포커스를 맞춘 특화매장 등으로 세분화된 마켓이 두 자리수 이상의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특히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식료품 구입 역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밀레니얼 세대를 비롯해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중심으로 식료품 구입 역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신선함을 우선으로 하며 여러 경로를 선택해 쇼핑하는 것을 즐기고, 가격에 더욱 민감해지는 등 변화하고 있는 것을 비추어 봤을 때, 식품업계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원스탑 대형 수퍼마켓은 힘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과 선호도 변화에 따라 식료품 구입 채널도 달라지고 있으며 온라인 구입이 보편화되고, 특화 또는 저가로 양분화되는 특징이 뚜렷해지면서 전통적인 원스탑 대형 수퍼마켓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국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식품 기업들도 달라지는 식료품 쇼핑 채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9. 4.(시카고 선물거래소)

□ 바이오디젤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로 상승한 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6.9%)

- 밀 선물가격은 기준 월이 9월에서 12월로 바뀌면서 전일대비 6.9% 상승하였다. 12월물 기준으로 전일대비 부셸 당 약 4센트 상승하였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3.8%)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3.8% 상승하였다. 12월물 기준으로 전일대비 부셸 당 약 2센트 하락하였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이 이달 말 수확이 시작될 중서부에서 수확될 엄청난 양의 옥수수 수확량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하였다고 전했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1.4%)

- 대두 선물가격은 기준 월이 9월에서 11월로 바뀌면서 전일대비 1.4% 상승하였다. 11월물 기준으로 전일대비 부셸 당 약 4센트 상승하였다. 일부 전문가들에 의하면,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 바이오디젤 수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이후 대두유 바이오디젤 부문의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가 대두 선물가격의 상승 원인이 되었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10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2017 국제농업박람회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2017
국제농업박람회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 전라남도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17. 10. 26. ~ 11. 5.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1일간)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일원
(전남 나주시 산포면 소재)



2017국제농업박람회를 소개합니다♡



주 제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griculture changes the world)

기 간

2017.10.26.(목) ~ 11. 5.(일) 11일간

창 소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행사규모

20개국 380개 기관·단체·기업, 관람객 45만명

주요내용

- 생동감이 살아 있는 수준 높은 전시 연출
- 생물권테츠로 구성되는 오감만족 체험학습
- 농산업 수익 및 경쟁력 증대를 선도하는 비즈니스 매칭
- 미래농업 시장과 함께하는 국내·국제 학술행사

아시아 최고의 농산업 비즈니스 박람회 지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전남도, aT와 함께하는 농식품 수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2회 개최

[국내바이어초청 구매상담회] 현대, 롯데, 이마트 등 온·오프라인 대형 유통채널 MD들과 함께하는 상품입점 품평회 개최

[현존하는 농식품, 농기자재와 미래 먹거리 관람객 현장구매] 국내외 대표 농기자재기업, 농식품, 고부가치 농산업 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B2C홍보판매마당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영농컨설팅 실시

- 도서·오지지역 방문 농업인 불편해소 및 현장애로 동시 해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본격적인 농작물 수확철을 앞두고 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농기계 순회 수리교육 및 영농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교관과 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담당자 등 5명으로 팀을 구성해 8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강진군과 함평군·완도군의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군별 3일간 맞춤형 현장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팀은 고장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응급 조치와 고장수리는 물론 안전운행요령 및 정비 점검을 포함하여 보관관리 요령까지 현장에서 실습교육 위주로 추진한다.
 - 또한 순회수리 기간 중에 고장난 농업기계는 마을 회관 등 현장에서 수리토록 하되, 고령화로 인한 취약계층인 여성농업인 등의 농업 기계는 직접 방문 수리토록 할 계획이다.
 - 전남농업기술원 박경곤 농업교육과장은 “트랙터·경운기·이앙기·콤바인을 각 1대씩 보유한 농가가 농기계의 정비 점검 및 올바른 사용방법을 실천한다면 연간 3백만원 정도의 영농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며 금번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영농컨설팅에 다수 농업인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백로(白露)

- 24절기 중 열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백로(白露)는 처서(處暑)와 추분(秋分) 사이에 들며, 양력 9월 7일경이나 8일 무렵으로 대개 음력 8월에 들며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 백로는 흰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때쯤이면 밤에 기온이 이슬점 이하로 내려가 풀잎이나 물체에 이슬이 맺히는 데서 유래한다.
- 가을의 기운이 완연히 나타나는 시기로 옛 중국 사람들은 백로부터 추분까지의 시기를 5일씩 삼후(三候)로 나누어 특징을 말하였는데,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날아오고, 중후(中候)에는 제비가 강남으로 돌아가며, 말후(末候)에는 못 새들이 먹이를 저장한다고 한다.
- 백로 무렵에는 장마가 걷힌 후여서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하지만 간혹 남쪽에서 불어오는 태풍과 해일로 곡식의 피해를 겪기도 한다. 백로 다음에 오는 중추는 서리가 내리는 시기이다.
- 전남에서는 백로 전에 서리가 내리면 시절이 좋지 않다고 한다. 벼논의 나락은 늦어도 백로가 되기 전에 여물어야 한다. 벼는 늦어도 백로 전에 패어야 하는데 서리가 내리면 찬바람이 불어 벼의 수확량이 줄어든다. 백로가 지나서 여문 나락은 결실하기 어렵다.
- 제주도 속담에 『백로전미발(白露前未發)』 이라고 해서 이때까지 패지 못한 벼는 더 이상 크지 못한다고 전한다. 또한 백로 전에 서리가 오면 농작물이 시들고 말라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

- 충남에서는 늦게 벼를 심었다면 백로 이전에 이삭이 패어야 그 벼를 먹을 수 있고, 백로가 지나도록 이삭이 패지 않으면 그 나락은 먹을 수 없다고 믿는다.
- 경남 섬지방에서는 『8월 백로에 비가 오면 십리 천석을 늘린다』라는 말이 전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풍년의 징조로 생각한다.
- 백로에 먹는 제철과일로 포도는 소화가 잘 되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있다.
- 백로에서 추석까지는 포도가 많이 나고 가장 맛있는 시기 『포도 순절』이라고 하는데, 그해 첫 포도를 따서 사당에 제를 지내고, 그 집 맡며느리가 한 송이를 통째로 먹는 풍습이다.
- 포도지정이라는 말은 어머니가 포도 한 알, 한 알 입에 넣어 껍데기와 씨를 분리해서 자식한테 입으로 먹여주던 정을 뜻하고, 이 말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행위를 했을 때 포도지정을 잊었다고 엄청 나무랐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151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